

高句麗 古墳壁畫 變遷에 관한 新論*

-服飾을 중심으로-

金正善

Kim, Jungsun
동아시아문화연구소

I. 들어가며

고구려 고분벽화는 이제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다.¹⁾ 그러나 실물을 직접 볼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그리고 자료의 부실한 공개와 인접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변천과정을 언급하는데 있어서도 다수의 案이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개개의 편년이 상당한 차이를 보

* 이 논문은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1999년도 연구지원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주요 논고는 다음과 같다.(年度順으로 나열)

朱榮惠, 『高句麗의 壁畫古墳』, 學生社 (1972)

金元龍, 『韓國壁畫古墳』, 일지사 (1980)

劉頌玉, 「고구려복식에 관한 연구-동서 복식 교류면에서」,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0)

崔淳雨, 「高句麗古墳壁畫 人物圖의 類型」, 『考古美術』150 (1981)

金基雄, 『韓國의 壁畫古墳』, 同和出版社 (1982)

최무장, 『고구려·발해문화』, 집문당 (1982)

朱榮惠, 『고구려고분벽화』, 朝鮮書報社 (1985)

中村潤子, 「高句麗壁畫古墳と樂浪の故地」, 『考古學と地域文化』 (1987)

安輝瀟, 「韓國古代繪畫의 特性과 意義-三國時代 人物畫를 中心으로」, 『美術資料』41·42 (1988)

三上次男, 『高句麗と渤海』, 吉川弘文館 (1990)

李成美, 「壁畫古墳」, 『북한의 문화유산』, 고려원 (1990)

최무장, 임연철, 『高句麗壁畫古墳』, 신서원 (1990)

魏存成·신용민역,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1996)

全虎兌,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7)

東潮,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1997)

安輝瀟, 「고구려 고분벽화의 흐름」, 『講座 美術史』10 (1998)

이고 있는 실정이다.²⁾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고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고분의 구조나 벽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왔던 고구려 고분벽화의 시간적 흐름을 문화적·사상적 측면을 통해 재조명 하고자 한다.

墳墓는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자의 遺骸와 魂魄을 안치하여 그들을 기리고 그 명복을 빌기 위한 장소로서³⁾ 거기에는 그 시대의 생활·문화상을 비롯한 일종의 사상이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양상들은 벽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피장자의 生前의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生活風俗圖 외에도 瑞獸, 瑞鳥, 四神, 日月星辰, 蓮花紋 등 死後世界에 대한 고구려인의 관념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모티브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분벽화의 정확한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畫題들의 종합적인 고찰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일반 생활·문화사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복식을 대상으로 지역별·시대별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상호 보완하여 고분벽화의 상대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함께 표현되어 있는 각종 모티브를 통한 사상적 흐름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서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II. 고구려 고분벽화 분포 현황

1. 平壤地域

평양지역은 順川·大同·平壤·江西·南浦·安岳의 6개 지역을 포함하며, 총 69기의 고분이 산재해 있다.⁴⁾

2) 본문 중의 <표 9> 고구려 벽화고분 편년안 참조

3) 趙善美, 「高句麗古墳壁畫에 나타난 繪畫思想」,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pp. 787-788 (1988)

4)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pp. 384-403 (2000)



順川地域 (1-4)	1.천왕지신총 2.요동성총 3.용봉리벽화분 4.동암리벽화분
大同地域 (5-11)	5.운룡리벽화분 6.청보리벽화분 7.덕화리1호분 8.덕화리2호분 9.가장리벽화분 10.팔청리벽화분 11.대보산리벽화분
平壤地域 (12-35)	12.평양역전고분 13.장산동1호분 14.장산동2호분 15.청계동1호분 16.청계동2호분 17.화성동벽화분 18.미산동벽화분 19.고산동1호분 20.고산동7호분 21.고산동9호분 22.고산동10호분 23.고산동15호분 24.고산동20호분 25.안학동7호분 26.안학동9호분 27.노산동1호분 28.개마총 29.내리1호분 30.남경리1호분 31.호남리사신총 32.전동명왕릉 33.진파리1호분 34.진파리4호분 35.경신리1호분
江西/南浦地域 (36-57)	36.성총 37.감신총 38.매산리사신총 39.우산리1호분 40.우산리2호분 41.우산리3호분 42.용흥리1호분 43.용강대묘 44.쌍영총 45.대안리1호분 46.대안리2호분 47.보산리벽화분 48.간성리연화총 49.태성리1호분 50.태성리2호분 51.수산리벽화분 52.강서대묘 53.강서중묘 54.덕흥리벽화분 55.약수리벽화분 56.마영리고분 57.계명동고분
安岳地域 (58-69)	58.월정리고분 59.한월리고분 60.노악리고분 61.안악읍고분 62.안악3호분 63.안악1호분 64.안악2호분 65.평정리벽화분 66.봉성리1호분 67.봉성리2호분 68.복사리벽화분 69.어수리고분

2. 集安地域

이 지역의 고구려 고분벽화는 1907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샤반느(E.Chavannes)가 散蓮花塚에서 벽화를 발견하고 1908년 이를 학계에 소개하

면서부터 그 존재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⁵⁾ 집안권은 集安·通溝·桓仁地域이 해당되며, 모두 23기의 고분이 있다.⁶⁾



集安地域 (1-6)	1.모두루총 2.하해방31호분 3.환문총 4.장천1호분 5.장천2호분 6.장천4호분
通溝地域 (7-22)	7.우산하41호분 8.각저총 9.무용총 10.통구12호분 11.산연화총 12.삼실총 13.통구사신총 14.오회분4호묘 15.오회분5호묘 16.산성하332호분 17.산성하983호분 18.미인총 19.귀갑총 20.산성하절천정묘 21.만보정1368호분 22.마선구1호분
桓仁地域 (23)	23.미창구장군묘

Ⅲ.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분석

여기서는 먼저 총 92기의 벽화고분 가운데 인물상의 상태가 양호한 총 8기의 고분-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수산리고분, 쌍영총,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삼실총을 대상으로 복식분석이 가능한 남자 인물상 179명, 여자 인물상 63명의 총 242명을 선별하였다.⁷⁾ 그리고 이들을 벽화 내용⁸⁾과 인물상 크기의大小

5) 金貞培 譯, 『韓國의 古代王朝 高句麗의 歷史의 紀念物』, 『白山學報』21, (1976)

6) 전호태, 앞의 책, pp.360-377 (2000)

7) 여기서는 飛天像, 樂人, 仙人 등은 제외하고, 대체로 형태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현실생활의 인물상만을 선택하였다.

에 의해 支配階層⁹⁾과 被支配階層¹⁰⁾으로 구분하였다.¹¹⁾

<표 1>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 분석대상

고분명	남 자		여 자		합계(名)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안악3호분	6	68	1	9	84
덕흥리	15	23	0	11	49
수산리	3	8	1	8	20
쌍영총	1	9	3	5	18
각저총	1	2	2	2	7
무용총	4	11	0	5	20
장천1호분	2	18	2	10	32
삼실총	1	7	1	3	12
합계(名)	33	146	10	53	242

1. 服飾

1) 服飾의 종류

가. 襦/袍

고구려 저고리에 관해서는 『北史』와 『隋史』에 大袖衫·襦¹²⁾, 『新唐書』에 衫筒袖¹³⁾, 『周書』에 同袖衫·襦¹⁴⁾등이 언급되어 있다. 襦는 원래 중국에서 착용 하던 긴 길이의 포에 비해 짧은 上衣를 가리키던 말로, 깃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¹⁵⁾ 衫은 홀의의 상의를 말하고, 겹옷이나 솜옷의 의미로 襦를 사

- 8) 벽화 내용은 주로 주인공 초상, 생활도, 하례도, 행렬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 9) 여기서는 지배계층에 王族·封建領主·中央官僚·地方官僚·官廷婦女·退役官僚·地方豪族 등을 모두 포함시켜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10) 여기서 사용한 피지배계층은 지배계층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일반서민을 비롯한 私奴·官奴·從卒·雜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11) 앞에서 언급한 용어의 정의에 따라서 지배계층에는 墓主와 부인, 賀禮圖에 등장하는 관리들, 그리고 나머지 인물상들은 모두 피지배계층에 포함시켰다.
- 12) 『北史』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三 高麗條
「人皆頭着折風形如弁 士人加挿二鳥羽 貴者其冠曰蘇骨多用紫羅爲之飾以金銀 服大袖衫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婦人裙襦加襖」
『隋史』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高麗
「人皆皮冠 使人加挿鳥羽 貴者冠用紫羅飾以金銀 服大袖衫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婦人裙襦加襖」
- 13) 『新唐書』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五 東夷 高麗條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釧 大臣青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釧 衫筒袖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戴弁 女子首巾幘」
- 14) 『周書』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上 高麗
「丈夫衣同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其冠曰骨蘇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挿二鳥羽於其上以顯異之 婦人服裙襦袖皆爲襖」
- 15)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11 (1998)

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袍는 襦袴 위에 착용하는 外衣를 뜻하고, 길이는 무릎 아래에서 발목사이에 오는 옷을 말한다.¹⁶⁾

복식의 분석에 있어서는 유와 포를 구별하지 않고, 깃의 형태와 소매 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깃의 형태는 둥근 깃인 曲領¹⁷⁾과 곧은 깃인 直領으로 大別하였고, 다시 직령은 여밈 방법에 따라 合衿直領¹⁸⁾, 左衿直領, 右衿直領으로 세분하였다.¹⁹⁾ 그리고 소매의 모양은 소매통이 좁고 손목까지 오는 筒袖와 소매통이 넓고 긴 大袖로 나누었다.²⁰⁾

나. 袴

袴는 일반적으로 바지를 말한다. 중국 史書에 보이는 고구려 袴에 관한 기록으로는 窮袴, 大口袴, 袴大口 등이 있다.²¹⁾ 대체로 궁고는 폭이 좁은 바지를 말하고, 대구고는 폭이 넓고 여유가 있는 형태로, 寬袴라고도 불렀다.²²⁾

다. 裳

裳은 주로 여인들이 착용하던 것으로, 일종의 치마이다. 중국에서는 원래 上衣下裳의 구조로 남녀 모두 치마를 착용한 예가 있으나, 우리 나라는 승복 등의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여기서 치마 길이가 짧은 것을 短裳, 긴 것을 長裳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²⁴⁾

16) 金美子, 「우리 나라 袍의 종류와 변천」, 『한국 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p.248 (1997)

17) 曲領은 둥근 목둘레를 뜻하는데 앞이 완전히 막힌 튜닉형의 round neckline과 U neckline, V neckline을 모두 포함한다.

18) 合衿直領은 앞 중심으로 마주 여미는 곧은 깃을 말한다.

19) 劉頌玉, 『韓國服飾史』, 修學社, pp.33-34 (1998)

20) 여기에서는 筒袖와 大袖의 구분에 있어 손목 선이 보일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대수로, 손목 선에 꼭 맞는 것은 통수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중국 복식에 나타나는 땅에 끌릴 정도의 대수와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21) 『南齊書』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東南夷 高麗

「高麗俗 服窮袴」

『周書』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上 高麗

「丈夫衣同袖衫 大口袴 白韋帶 黃革履」

『隋書』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高麗

「貴者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北史』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三 高麗條

「貴者其冠曰蘇骨多用紫羅爲之 飾以金銀 服大袖衫 大口袴 素皮帶 黃革履」

『新唐書』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五 東夷 高麗條

「衫筒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22) 衫本正年, 앞의 책, p.304 (1995)

23) 유희경, 김문자, 앞의 책, p.36 (1998)

24) 短裳은 치마 아랫단의 길이가 짧아 裳 아래의 袴가 보일 정도 길이의 치마를 말하고, 長裳은 치마 아랫단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긴치마를 말한다. 단, 短裳과 長裳은 논자가 임의로 정한 명칭임을 밝혀둔다.

2) 古墳壁畫에 나타난 服飾의 종류별 분포상황

이제까지 고구려 복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襦·袍·袴·裳을 하나씩 떼어서 각각의 형태나 착용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⁵⁾ 그러나 고분벽화의 인물상들은 襦나 袍, 袴나 裳을 한가지씩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의와 하의가 결합된 한 벌의 옷을 입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上衣인 襦/袍를 중심으로 下衣인 袴(窮袴/大口袴)와 裳(短裳/長裳)을 각각 결합하여 4가지 pattern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pattern別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구분하여 인물상의 수를 파악하였다.

가. 襦/袍+窮袴

ㄱ. 지배계층

고분명	복식	대수/곡령	대수/좌임	대수/우임	통수/곡령	통수/좌임	통수/우임
		궁고	궁고	궁고	궁고	궁고	궁고
평양 지역	안악3호분						
	덕흥리						
	수산리						
	쌍영총						
집안 지역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삼실총						
합 계							

ㄴ. 피지배계층

고분명	복식	대수/곡령	대수/좌임	대수/우임	통수/곡령	통수/좌임	통수/우임
		궁고	궁고	궁고	궁고	궁고	궁고
평양 지역	안악3호분	50			14		
	덕흥리	7			16		
	수산리			2	3		1
	쌍영총			1			2
집안 지역	각저총					2	
	무용총					9	
	장천1호분					11	
	삼실총		1				
합 계		57	1	3	33	22	3

25)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劉頌玉, 「高句麗服飾에 관한 研究-東西 服飾 交流面에서」, 홍익대석사학위논문 (1980)

金美子, 「高句麗 古墳壁畫를 통해 본 高句麗 服飾에 관한 研究」, 『고구려연구』4, 고구려연구회 (1997. 12)

나. 儒/袍+大口袴

가. 지배계층

고분명	복식	대수/곡령	대수/좌입	대수/우입	통수/곡령	통수/좌입	통수/우입
		(袍)	대구고	대구고	대구고	대구고	대구고
평양 지역	안악3호분	5					
	덕흥리	15					
	수산리	3					
	쌍영총	1					
집안 지역	각저총					1	
	무용총	2				2	
	장천1호분					1	
	삼실총					1	
합 계		26				5	

※ 대수/곡령의 袍를 착용한 인물들은 긴 길이의 袍때문에 정확한 고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의 형태를 생략하고 예외적으로 표기하였다.

나. 피지배계층

고분명	복식	대수/곡령	대수/좌입	대수/우입	통수/곡령	통수/좌입	통수/우입
		(포)	대구고	대구고	대구고	대구고	대구고
평양 지역	안악3호분	4					
	덕흥리						
	수산리			1			
	쌍영총		1			1	1
집안 지역	각저총						
	무용총					2	
	장천1호분					6	1
	삼실총		5				
합 계		4	6	1		9	2

※ 앞 표기를 참고하기 바람.

다. 儒/袍+短裳

가. 지배계층

고분명	복식	대수/곡령	대수/좌입	대수/우입	통수/곡령	통수/좌입	통수/우입
		短裳	短裳	短裳	短裳	短裳	短裳
평양 지역	안악3호분						
	덕흥리						
	수산리						
	쌍영총						
집안 지역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삼실총						
합 계							

ㄴ. 피지배계층

고분명	복식	대수/곡령	대수/좌임	대수/우임	통수/곡령	통수/좌임	통수/우임
		短裳	短裳	短裳	短裳	短裳	短裳
평양 지역	안악3호분						
	덕흥리	10		1			
	수산리						
	쌍영총						
집안 지역	각저총			1			
	무용총					5	
	장천1호분		1			1	
	삼실총						
합 계		10	1	2		6	

ㄹ. 儒/袍+長裳

ㄱ. 지배계층

고분명	복식	대수/곡령	대수/좌임	대수/우임	통수/곡령	통수/좌임	통수/우임
		(袍)	長裳	長裳	長裳	長裳	長裳
평양 지역	안악3호분	1					
	덕흥리						
	수산리			1			
	쌍영총			3			
집안 지역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1				
	삼실총		1				
합 계		1	2	4			

※ 대수/곡령의 袍를 착용한 인물들은 긴 길이의 袍때문에 정확한 裳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裳의 형태를 생략하고 예외적으로 표기하였다.

ㄴ. 피지배계층

고분명	복식	대수/곡령	대수/좌임	대수/우임	통수/곡령	통수/좌임	통수/우임
		(袍)	長裳	長裳	長裳	長裳	長裳
평양 지역	안악3호분	7					
	덕흥리						
	수산리			7			
	쌍영총			5			
집안 지역	각저총						
	무용총						
	장천1호분					3	
	삼실총		8				
합 계		7	8	12		3	

※ 앞 표기를 참고하기 바람.

2. 冠帽

1) 冠帽의 종류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관모는 대체로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武冠

일명 駮躡冠 또는 鶴冠이라고도 하며 주로 武官이 착용하였다. 무관에 관해서는 『後漢書』與服志에 '武冠 일명 武弁大冠이라고 한다. 시중·常侍는 황금의 璫을 더하고 蟬文을 붙여서 무늬로 삼으며, 담비꼬리로서 장식으로 삼는다. 이것을 趙의 惠文冠이라고 한다.'라는 記事가 보인다.²⁶⁾

무관은 평의 일종인 할새의 꼬리털이나 錦鷄의 깃을 꽂아 장식하였으므로 할관 혹은 준의관이라 부른다. 또한, 趙의 武靈王이 胡服을 채용하면서 胡帽에 붙여져 있었던 앞이마의 장식과 담비꼬리를 모자에 붙인 胡人の 풍습을 동시에 채용했는데, 秦이 趙를 멸했을 때 조의 무장이 이 관을 가까운 신하에게 하사한 이후부터 무관을 일명 조의 혜문관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²⁷⁾(圖1, 2)

나. 幘

幘이란 頭巾의 일종으로 頭髮 또는 首髻를 덮어싸우기 위한 간단한 頭巾狀의 冠帽를 말한다.²⁸⁾ 건과 책을 엄밀히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발생적인 면에서 본다면 건은 머리를 싸는 천을 말하고, 책은 머리에 두르는 머리띠라고 생각된다.²⁹⁾

일반적인 책은 '顏題'라고 하는 삼각모양의 前面장식과 '耳'라고 하는 양쪽에 늘어뜨린 천, '頂巾'과 '幅巾'이라고 하는 後頭의 隆起部, '收'라고 하는 후두부에 늘어뜨린 천,³⁰⁾ '屋'이라고 하는 상부를 덮는 巾³¹⁾으로 구성되어 있다.(圖3) 책은 屋의 有無, 耳와 收의 長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으며,³²⁾ 색은 보통 黑色이지만 郊祭에 사용하는 冕服用의 책에는 五時의 복색이 있었다. 단 武官이나 武官府에 근무하는 文官은 모두 赤色の 책을 사용했는데, 이는 戰國時代 絳帟의 遺風이다.³³⁾

26) 『後漢書』與服志

「武冠 一日武弁大冠 諸武官冠之 侍中中常侍加黃金璫 附蟬爲文 貂尾爲飾 謂之趙惠文冠」

27) 衫本正年·문광희역, 『동양복장사논고-고대편』, 경춘사, p.160 (1995)

28) 이여성, 『조선복식고』, 백양당, p.166 (1947)

29) 衫本正年, 앞의 책, p.173 (1995)

30) 衫本正年, 앞의 책, p.319 (1995)

31)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p.128 (1937)

32) 鄭宛眞, 「高句麗 冠帽考」, 서울대석사논문, p.39 (1994)

고구려의 幘은 중국의 책과 모양은 비슷하나, 『後漢書』³⁴⁾, 『三國志』³⁵⁾, 『梁書』³⁶⁾, 『通傳』³⁷⁾의 기록에 의하면 중국 고유의 책과는 달리 뒤가 없는 無後幘이었다. 여기서 無後는 후두부에 늘어뜨린 收의 부채를 의미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巾

巾은 한 장의 형식으로 머리를 둘러싸던 소박한 쓰개를 말한다. 그 착용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 다 머리를 덮는 식으로 정수리를 덮어 뒤통수에 바짝 치켜 맨 다음 그 끝을 내려뜨리고 있으며, 색은 黑色 한가지이다.³⁸⁾

라. 折風(蘇骨)

折風이란 박음선이 한 곳 뿐인 책을 말하며, 帽頂이 뾰족한 삼각형의 쓰개인 弁形帽이다. 절풍과 소골에 관해서는 『後漢書』³⁹⁾, 『三國志』⁴⁰⁾, 『梁書』⁴¹⁾, 『魏書』⁴²⁾, 『北史』⁴³⁾, 『通傳』⁴⁴⁾, 『增補文獻備考』⁴⁵⁾ 등에 언급되어 있다. 이들 史書의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소골은 절풍과 혼돈 될 만큼 기본 형태는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皮冠인 折風과 구별하여 紫羅로 만든 貴者의 것을 蘇骨이라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33) 衫本正年, 앞의 책, p.176 (1995)

34) 『後漢書』卷一百十五 高句麗條

「大加主簿皆著幘如冠幘而無後」

35) 『三國志』卷十三 烏丸鮮卑 東夷傳 第三十 高句麗

「大加主簿 頭著幘 如幘而無後 其小加 著折風形如弁」

36) 『梁書』卷五十四 列傳 第四十八 諸夷 東夷 高句麗

「大加主簿頭所著 似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37) 『通傳』卷一百八十六

「大加主簿皆著幘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38) 姜淳弟, 「우리나라 관모의 변천」,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pp.207-208 (1997)

39) 『後漢書』卷一百十五 高句麗條

「大加主簿皆著幘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40) 『三國志』卷十三 烏丸鮮卑 東夷傳 第三十 高句麗

「大加主簿 頭著幘 如幘而無後 其小加 著折風形如弁」

41) 『梁書』卷五十四 列傳 第四十八 諸夷 東夷 高句麗

「大加主簿頭所著 似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42) 『魏書』卷一百 高句麗傳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貴賤有差」

43) 『北史』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三 高麗條

「人皆頭著折風形如弁 士人加插二鳥羽 貴者其冠曰蘇骨多用紫羅爲之飾以金銀」

44) 『通傳』卷一百八十六

「大加主簿皆著幘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形如弁」

45) 『增補文獻備考』卷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一

「通典曰 南齊永明中 高句麗使至 服窮袴 冠折風 王融戲其冠 答曰 此古弁之遺制也」

마. 鳥羽冠 鳥羽冠은 折風이나 蘇骨에 鳥羽나 鳥尾를 삽식한 冠帽을 말한다. 대체로 천연의 새 깃털 두 개를 꽂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鳥尾를 장식한 예도 있고, 금속제 鳥羽를 삽식하기도 했다. 조주관은 史書의 기록을 참고로 하면,⁴⁶⁾ 대체로 계급이나 貴賤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바. 角冠 이 관은 折風과 마찬가지로 머리에 폭 뒤집어 쓸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어서 머리에 가볍게 얹는 기분으로 썼던 것 같다. 이러한 각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製作時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었을 것이므로, 앞에서 뒤로 한번만 봉합하면 되는 절풍, 즉 弁形 冠帽보다는 발달된 단계의 관모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관은 周邊의 다른 국가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 특유의 관모로 생각된다.⁴⁷⁾

사. 巾幘 巾幘의 형태에 관해서는 현재, 巾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와⁴⁸⁾ 假髻로 보는⁴⁹⁾ 두 가지 견해가 있다. 권귀에 관해서는『新唐書』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五 東夷 高麗條에 ‘女子首巾幘’이란 기록이 보이는데, 그 내용이 간략하여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악3호분을 제외하고는 假髻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권귀를 가계의 일종으로 보기에는 再考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필자는 권귀를 巾의 일종으로 보고, 그 내용

46) 『魏書』卷一百 高句麗傳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周書』卷四十九 列傳 第四十一 異域上 高麗

「其冠曰骨蘇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 其有官品者 又插二鳥羽於其上以顯異之」

『隋書』卷八十一 列傳 第四十六 東夷 高麗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北史』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三 高麗條

「人皆頭着折風形如弁 土人加插二鳥羽」

『新唐書』卷二百二十 列傳 第一百四十五 東夷 高麗條

「大臣青羅冠 次絳羅 珥兩鳥羽 金銀雜釧」

47) 鄭宛眞, 앞의 논문, p.64 (1994)

48) 林巳奈夫, 『漢代の文物』,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p.79-80 (昭和 51年)

衫本正年, 앞의 책, p.320 (1995)

유희경, 김문자, 앞의 책, p.34 (1998)

49) 姜淳弟, 앞 논문, 국립민속박물관, p.208 (1997)

金谷文, 「假髻와 步搖에 관한 研究-中國을 中心으로」, 『服飾』18호, pp.213-214 (1992)

鄭宛眞, 앞 논문, pp.31-32 (1994)

을 서술하고자 한다.

권귀는 한 장의 형겼을 넓게 편 채 이마와 정수리를 덮어 뒤쪽에서 고정 시킴으로서 정면에서 보면 정수리가 위로 조금 솟아 있는 형상을 띠게 된다.

2) 古墳壁畫에 나타난 冠帽의 종류별 분포상황

고구려 冠帽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史書의 내용을 참고로 형태를 고증하고, 그 원류를 살펴보는데 치중해 왔다.⁵⁰⁾ 그러나 본고에서는 각 고분에 보이는 관모의 종류별 착용 인물 수를 도표화하여 평양과 집안지역 사이에 보이는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지역간의 직접적인 교류 관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표 2>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冠帽의 종류

고분명 \ 관모종류								
		武冠	無後幘	巾	折風(蘇骨)	烏羽冠	角冠	巾幘
평양 지역	안악3호분	6	51	11				
	덕흥리	2	17	19				
	수산리	1	2	5				
	쌍영총	1		1		2		
집안 지역	각저총							2
	무용총			5	5	4	2	
	장천1호분			1	1	3	4	2
	삼실총				1		2	1
합 계		10	70	42	7	9	8	5

위의 <표 2>를 보면, 巾 착용 인물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평양지역과 집안지역에 보이는 관모의 종류가 확연히 구분된다. 즉, 평양지역에서는 주로 中國系 관모인 武冠과 無後幘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집안지역에서는 고구려 고유의

50) 柳喜卿, 앞의 책 (1989)

柳喜卿·金文子, 앞의 책 (1997)

劉頊玉, 『韓國服飾史』, 修學社 (1998)

金貞鎬, 「고구려고분벽화 복식과 사회계층」, 숙명여대박사학위논문 (1989)

金美子, 앞의 논문 (1997. 12)

鄭宛眞, 앞의 논문 (1994)

관모로 생각되는 折風, 蘇骨, 鳥狔冠, 角冠, 巾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평양지역의 쌍영총에 조우관을 착용한 2명의 인물이 있다. 이들은 평양지역과 집안지역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설명하는 중요한 예로 생각되며, 자세한 기술은 뒤에 다시 하기로 하겠다.

3. 修髮

1) 修髮의 종류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머리모양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의 7가지 형태로 구분 가능하다.

가. 加髻式

결발 또는 변발의 기법으로 본인의 머리 외에 다른 머리를 엮어서 구성한 것을 말한다.

나. 髻頭

머리의 대부분을 깎고 주변의 毛髮만을 남겨, 그 남긴 모발을 땅아서 얼굴의 양옆이나 뒤에 늘이거나, 散髮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로 東胡의 匈奴, 烏桓, 鮮卑인들의 髮型이다.⁵¹⁾

다. 올린머리

발모를 땅아서 머리에 두른 형식으로 일종의 盤髻로 볼 수 있겠다.

라. 엮은머리A

모발을 뒷머리로부터 앞머리로 감아 돌려 끝을 앞머리 가운데에 감아 꽃

51) 金谷文, 「아시아의 修髮樣式에 관한 研究」,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 p.154 (1993)

민족·국가	년대	남자	여자
스키타이	B.C.8C-A.D.0	被髮/斷髮/椎髻	髻頭/辮髮/斷髮
匈奴	B.C.3C	剪髮/辮髮/椎髻	辮髮/髻頭
烏桓 鮮卑		髻頭/辮髮	分烏髻
柔燕	402-555	辮髮/剪髮	雙髻/挽髻
壓達	484-567	剪髮	盤髻
高唱		辮髮	高髻/雙髻
吐蕃	629-870	髻頭/斷髮	辮髮
突厥	552-734	被髮/辮髮/斷髮	辮髮
위그르	744-840	被髮	總髻
契丹 女眞		髻頭/辮髮	髻頭/雙髻/盤髻
蒙古		髻頭/辮髮	辮髮/分烏髻

자료: 金谷文, 앞의 논문, p.127 (中央아시아의 수발양식)

은 것이다.

마. 엮은머리B

뒷머리를 한데 모아 앞머리 쪽으로 엮은 것으로, 변발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바. 묶은 중발머리

짧은 두발을 뒷머리에 낮게 묶은 머리모양이다. 발모를 잘라 낮게 묶고 그 끝을 위로 반전시킨 형태이다.

사. 垂髮

발모를 자연스럽게 뒤로 垂下시키는 양식이다.

2) 古墳壁畫에 나타난 修髮의 종류별 분포상황

이제까지 수발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金容文선생의 몇 편의 논문을⁵²⁾ 제외하고는 史料의 제한적인 언급과 자료의 미비함으로 인해 服飾史 전반에 있어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개설적이였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修髮의 정확한 명칭이나, 수발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7가지 수발 유형에 따른 인물상의 수를 파악하여 평양과 집안의 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두 지역간의 교류 관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표 3>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修髮의 종류

수발종류 고분명								
		加髻	髻頭	올린머리	엮은머리A	엮은머리B	묶은중발	垂髮
평양	안악3호분	7						
지역	덕흥리		11		3			
	수산리		1	5	1		1	
지역	쌍영총		1	3			1	5
	각저총						1	1
집안	무용총					2	1	5
	장천1호분					2	9	4
지역	삼실총					2	1	3
	합 계	7	13	8	4	6	14	18

52) 金容文, 「우리나라 修髮에 관한 研究」,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1982)

, 「아시아 修髮樣式에 관한 研究-東아시아를 中心으로」,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 (1993)

앞의 <표 3>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양지역에서는 加髻, 髻頭, 올린머리, 엷은머리A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집안지역에서는 엷은머리B, 묶은중발, 垂髮 등 평양지역과는 다른 종류의 수발 형태가 보인다. 修髮 역시, 冠帽와 마찬가지로 두 지역간의 뚜렷한 지역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집안지역에 주로 보이는 묶은중발과 垂髮의 형태가 평양지역의 수산리고분과 쌍영총에 보이는 점이다. 이 역시 앞서 언급한 鳥羽冠과 마찬가지로 평양과 집안, 두 지역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반영하는 예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쌍영총은 冠帽와 修髮 두 종류 모두에서 집안지역의 특징과 평양지역의 특징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평양지역의 여느 다른 고분에 비해 쌍영총 축조 당시가 두 지역의 긴밀한 교류 관계가 행해지던 때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IV. 고구려 고분벽화 복식의 특징

1. 고구려 복식의 지역성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식을 언급할때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집안과 평양 사이에 보이는 지역차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성은 주로 衽制의 차이에 의해⁵³⁾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임제의 차이는 보편적인 지역차로 인정하고, 그 외의 요소를 중심으로 지역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남자복식을 통해본 지역적 특징

먼저 지배계층의 복식을 자료 가-1, 나-1을 통해 살펴보면 평양지역에서는 大袖의 袍를, 집안지역에서는 筒袖에 大口袴를 착용하고 있어 두 지역이 확연히 다른 종류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각 지역 별로 한가지 유형만을 固守하는 것은 당시 지배계층의 복식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으며 동시에 강한 보수성을 띄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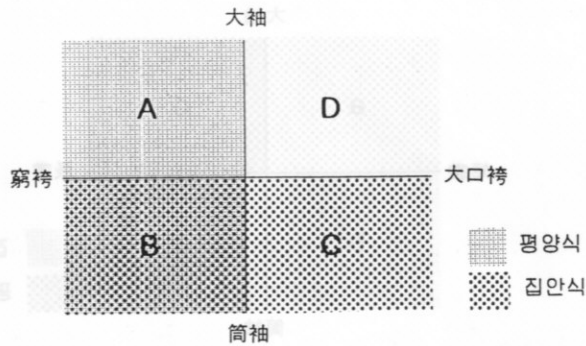
다음으로 피지배계층의 복식을 살펴보면, 이들은 지배계층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지배계층의 복식이 평양과 집안지역에서 각기 다른 한가지 유형을 일률적으로 착용한 것에 비해, 피지배계층의 복식은 여러 가지

53) 주로 집안지역에서는 左衽이, 평양지역에서는 右衽이 많이 보이는 점을 들어 두 지역의 차이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유형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자료 가 나, 나 나을 살펴보면 집안지역은 大口袴와 窮袴를 착용한 인물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筒袖를 착용한 인물수가 大袖를 착용한 인물수에 비해 많다. 그리고 평양지역은 窮袴를 착용한 인물수가 大口袴를 착용한 인물 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반면, 筒袖와 大袖의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상을 정리하면 집안지역의 경우, 下衣는 대구고·궁고를 모두 착용한 반면 上衣는 주로 통수를 착용했으며 평양지역의 경우, 下衣는 주로 궁고를 착용한 반면 上衣는 대수·통수를 모두 착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가로축을 袴, 세로축을 綫로 하여 그래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1]



유형	복식 양상	계층	지역
A	大袖+窮袴	지배계층	평양
B	筒袖+窮袴	피지배계층	평양/집안
C	筒袖+大口袴	지배계층/피지배계층	집안
D	大袖+大口袴	피지배계층	평양/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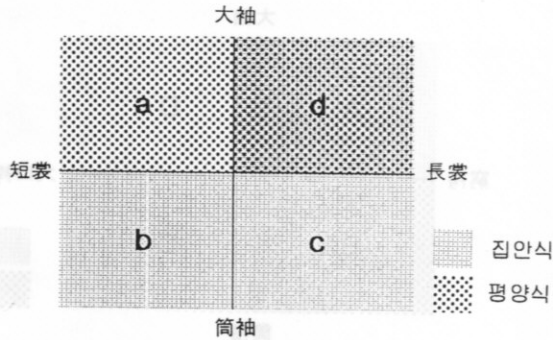
먼저 [그래프 1]에 보이는 서로 다른 4종류의 복식양상을 각각 A, B, C, D 유형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圖4, 5, 6, 7) 그리고 이들 유형을 참고로 남자복식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평양과 집안에서 각각 A와 C라는 전혀 다른 유형의 복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각 지역의 특징을 대표하는 유형으로서 각각 平壤式과 集安式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둘째, B유형과 D유형은 평양과 집안에서 모두 보이며, 주로 피지배계층이 착용하였다. 그러나 B유형과 D유형이 모두 동일 지역의 동일 계층이 착용한 것이긴 하나, B유형이 고구려 피지배계층의 보편적인 복식이라면 D유형은 그 수가 한정적이어서 예외적인 유형으로

생각된다. D유형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 여자복식을 통해본 지역적 특징

자료 다 7, 라 7을 살펴보면 지배계층은 해당 인몰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평양과 집안이라는 지역 차이 없이 대체로 大袖의 상의에 긴치마(長裳)를 입고 있다. 반면, 피지배계층은 남자복식과 마찬가지로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데, 평양지역에서는 大袖의 상의에 短裳과 長裳의 예가 보이고, 집안지역에서는 통수·대수, 短裳·長裳의 모든 유형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을 가로축을 裳, 세로축을 袖로 정하여 그래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2]



유형	복식 양상	계층	지역
a	大袖+短裳	피지배계층	평양
b	筒袖+短裳	피지배계층	집안
c	筒袖+長裳	피지배계층	집안
d	大袖+長裳	지배계층/피지배계층	평양/집안

먼저 [그래프 2]에 보이는 4종류의 복식양상을 각각 a, b, c, d 유형으로 규정하고, 여자복식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圖8, 9, 10, 11) 첫째, 평양과 집안 두 지역에서는 각각 a와 b·c라는 다른 유형의 복식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각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들을 각각 平壤式과 集安式으로 명명할 수 있겠다. 둘째 d유형은 평양과 집안 두 지역 모두 보이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모두 착용하였다. 이것은 남자복식 B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자복식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며, 대중적인 형태라 하겠다.

2. 고구려 복식의 시대성

지금부터는 앞서 언급한 남녀의 8가지 유형을 토대로 복식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上位階層의 文化가 下位階層의 文化로 전과 되어, 이것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시간의 경과가 요구된다는⁵⁴⁾ 전제를 바탕으로 복식유형간의 先後관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1) 남자복식을 통해본 시대적 특징

앞의 명제에 근거하면, 일반적으로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복식을 모방하여 자신들의 복식으로 보편화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된다는 가설이 가능하게 된다.⁵⁵⁾ 즉, 지배계층의 복식을 기준으로 피지배계층의 복식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지 밝혀보도록 하겠다.

먼저 평양지역 고분별 복식 유형을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표 4> 평양지역 고분별 복식유형

고분명 \ 복식유형	A	B	C	D
안악3호분(357)	○	○		
덕흥리고분(408)	○	○		
수산리고분	○	○		○
쌍영총	○	○	○	○

※ ● 지배계층 ○ 피지배계층
集安式

위 표를 보면 안악3호분과 덕흥리고분은 A, B유형이, 수산리고분과 쌍영총은 A, B, D유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A, B유형은 4기의 고분에 모두 보일 뿐 아니라, 착용 계층마저 피지배계층으로 제한된 까닭에 이들 유형의 선후관계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A/B유형과 D유형의 선후관계를 두 가지 추론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는 A/B유형이 先行하다가 새로운 유형인 D유형이 출현하게 되었을 경우와 둘째는 A, B, D유형이 함께 공존하다가 D유형이 먼저 사라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설의 경우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먼저 A, B, D유형이 함께 유행하다가 갑

54)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이 가진 물질적 상징 혹은 樣式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상위계층에 속하려고 하는 社會戰略을 취하지만, 하위계층이 이것을 수용하였을 때는 이미 상위계층은 더욱 새로운 상징물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간의 서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高久健二, 『樂浪古墳文化 研究』, 학연문화사, p.217 (1995)) 결국,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의 文化를 받아들여 이를 그들의 文化로 보편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경과되기 마련이고, 이러한 계층간의 영속적인 순환관계는 시간의 흐름 내에서 가능하게 된다.

55) 비록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동일한 복식형태를 착용하게 된다하더라도 복식의 재질, 색 등에서는 여전히 계층 차가 존재한다.

자기 D유형만 소멸된 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동기를 알 수 없는 점, 끝으로 현재까지 고구려 고분벽화 중 最古式으로 알려진 안악3호분에 그 예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이다. 따라서 전자의 가설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A, B, D의 선후관계는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겠다.

A/B ⇒ D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지해야 할 것은 동일한 피지배계층이 평양이란 동일한 지역에서 A와 B 두 종류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복식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冠帽를 통해 그 해답에 접근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古墳壁畫에 나타난 冠帽의 종류별 분포상황을 보면, 평양지역은 대부분 幘과 巾을 착용하였다. 다음 표에서는 이 두가지 관모를 중심으로 복식 유형별 着裝者 數를 살펴보았다.

<표 5> 복식 유형별 幘/巾 着裝者數

고분명	복식유형별幘/巾		A		B		C		D	
	幘	巾	幘	巾	幘	巾	幘	巾	幘	巾
안악3호분	50		4	10						
덕흥리고분		7	4	12						
수산리고분		2								1
쌍영총		1								
각저총										
무용총					2					
장천1호분					1					
삼실총										

<표 5>를 보면, 안악3호분에서 A유형은 幘을, B유형은 幘 또는 巾을 쓰고 있다. 특히, A유형을 입고 책을 쓴 인물상들은 안악3호분을 제외하고는 그 예가 없을 뿐 아니라, 漢式服制인 曲領의 襦 또는 袍를 착용하고 있어서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여느 인물상들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덕흥리고분에서는 안악3호분에 보이지 않던 A유형의 복식에 巾을 쓴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의 성격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안악3호분에 보였던 漢式복제에 책을 쓴 인물들이 사라지면서 이를 대신할 계층이 등장했을 가능성, 둘째는 그 전까지는 계층을 달

리 했던 巾 착용자의 위치가 안악3호분에 보였던 A유형의 복식에 책을 쓴 인물들과 동일해 졌을 가능성이다.

따라서 평양지역에 있어서 A유형을 입었던 인물들은 관모의 차이에 의해 두개 혹은 그 이상의 계층으로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유형을 착용한 인물들 역시 동일한 복식이라 해도 관모의 종류에 따라 계층차가 뚜렷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자세한 계층성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힘들다.

다음은 집안지역의 고분별 복식유형을 살펴보기로 하자. 집안지역은 평양지역과는 달리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복식이 동시에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상위계층 복식을 중심으로 하위계층의 복식유형이 어떠한 선후관계를 가지는지 추론해 보기로 한다.

<표 6> 집안지역 고분별 복식유형

고분명 \ 복식유형	A	B	C	D
각저총		○	●	
무용총		○	●	
장천1호분		○	●○	
삼실총			●	○

※ ● 지배계층
○ 피지배계층

위 표를 보면 집안지역은 B, C, D 세가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B와 D 유형의 선후관계는 <표 4>를 통해 B유형이 선행하는 것을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B와 C, C와 D 유형의 선후관계를 추정해 보도록 하자. 먼저, B와 C 유형의 선후관계를 장천1호분을 통해 살펴보면 이제까지 지배계층에서만 보이던 C유형이 피지배계층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가설에 따르면 B유형을 착용하던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C유형을 모방하여 수용한 결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지배계층에 있어서는 B유형이 C유형에 비해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C유형과 D유형의 선후관계를 살펴보자. D유형은 삼실총의 피지배계층에서 유일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B와 C유형을 착용하던 피지배계층이 모두 D유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C가 D에 비해 선행한다.

B ⇒ C ⇒ D

2) 여자복식을 통해본 시대적 특징

지금부터는 남자복식과 동일한 과정으로 여자복식의 시대적 특징을 추정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평양지역 고분별 복식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평양지역 고분별 복식유형

고분명 \ 복식유형	a	b	c	d
안악3호분(357)				
덕흥리(408)	○			
수산리				● ○
쌍영총				● ○

※ ● 지배계층 ○ 피지배계층

<표 7>을 보면 평양지역의 피지배계층은 a와 d 두 가지 유형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다. d유형은 수산리고분과 쌍영총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에서 모두 보이는 반면, a유형은 덕흥리고분의 피지배계층만 확인된다. 이것은 a유형을 착용하던 덕흥리고분의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d유형을 모방하고자 한 결과, 수산리고분과 쌍영총에서는 두 계층이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a유형이 d유형으로 시간의 경과를 두고 변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a ⇒ d

다음으로 집안지역 고분별 복식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집안지역 고분별 복식유형

고분명 \ 복식유형	a	b	c	d
각저총	①			
무용총		○		
장천1호분	①	○	○	●
삼실총				● ○

※ ● 지배계층 ○ 피지배계층

① 해당 인물수가 1명 平壤式

집안지역의 복식유형은 해당 인물수가 1명인 a유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b, c, d 세 가지이다. 그런데 b와 c유형의 경우, 이들이 모두 동일한 계층에서 착

용되어 그 전후관계를 밝히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배계층의 d유형을 중심으로 b/c유형과의 전후관계를 밝혀보기로 하자.

장천1호분에서는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던 d유형이 삼실총에서는 피지배계층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b/c유형을 착용하던 피지배계층이 시간 차를 두고 지배계층의 d유형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b/c유형이 d유형에 비해 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c ⇒ d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고구려 복식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袴의 폭이 먼저 넓어진 후에, 소매의 폭도 점차 여유 있게 된 것으로 추측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寬大해지는 경향을 보인다.⁵⁶⁾

V. 고구려 고분벽화의 변천

고구려 고분벽화의 편년에 관한 문제는 다수의 학자들이 異見을 보이고 있을 만큼 정확한 내용을 유추하기가 힘들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는 지역성과 시기성 간의 미묘한 상관관계가 전제되어 있어, 고분벽화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특성의 종합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복식의 변천이라는 시기성을 중심으로 두 지역 복식들의 상호 교류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시기성과 지역성을 통한 고분벽화의 상대적인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복식 변천에 따라 평양과 집안의 고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지역] 안악3호분→덕흥리→수산리/쌍용총

[집안지역] 각저총/무용총→장천1호→삼실총

위의 고분 순서를 전제로 여자복식을 살펴보면 첫째, 덕흥리고분에 보이는 a유형이 집안지역의 각저총과 장천1호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각저총에 보이는 a유형이 덕흥리고분과 동일한 右衽인데 비해, 장천1호분에서는 左衽의 a유형이 확인된다. 이것은 각저총에 보이는 우임의 a유형이 덕흥리고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반면, 장천1호분에 나타나는 좌임의 a유형은 집안 지

56) 이러한 고구려의 寬大化 경향은 중국 陝西省 乾縣에서 발굴된 7세기 말의 章懷太子墓에 묘사된 외국사절 중에 鳥獠冠을 쓰고 廣袖의 襦에 大口袴를 착용하고 있는 고구려 사절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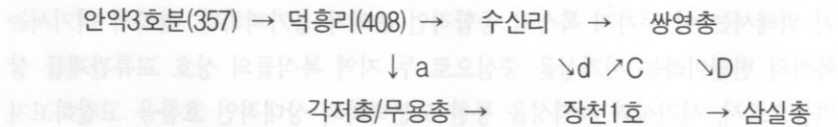
역의 보편적인 衽制인 좌임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평양지역의 수산리고분과 쌍영총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모두 입고 있는 d유형이 집안지역에서는 장천1호분의 지배계층에서 처음 보인다. 이것은 평양지역에서 이미 보편화된 d유형이 집안지역에 유입되면서 지배계층이 이를 먼저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셋째, 집안지역의 삼실총에서는 d유형이 피지배계층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보이던 b와 c유형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평양지역의 수산리고분과 쌍영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두 지역이 모두 d유형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남자복식을 살펴보면 첫째, 集安式 C유형이 평양지역의 쌍영총에 보인다. C유형은 집안지역 고유의 복식으로 주로 지배계층에서 착용하다가 장천1호분의 시기가 되면 피지배계층까지 확대되는 복식이다. 특히 쌍영총에 보이는 C유형은 衽制에 있어서도 左衽을 따르고 있어서 두 고분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관계를 추정할 수 있겠다.

둘째, 집안지역에서 D유형은 삼실총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이 유형은 이제까지 집안지역에서는 그 예가 없었던 새로운 유형으로서, 평양과 집안지역 사이의 긴밀한 교류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模式圖를 보면 먼저, 두 지역간에 가장 활발한 교류관계를 보이는 수산리, 쌍영총, 장천1호분의 시기는 427년 이루어진 평양천도라는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쌍영총에 등장하는 조우관을 쓰고, 좌임의 C유형의 전형적인 집안식 복식을 한 인물들은 遷都를 전후한 시기에 집안에서 평양으로 이주한 자들로 추측된다. 그리고 삼실총 단계가 되면 그간의 다양한 복식유형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 역시 평양천도이후 5C代 고구려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반영하는 일면이라 하겠다.

끝으로 고구려 벽화고분의 변천에 관한 제 견해들은 <표 9>를 참고하기 바란다.

용되어 그 전후관계를 밝히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배계층의 d유형을 중심으로 b/c유형과의 선후관계를 밝혀보기로 하자.

장천1호분에서는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던 d유형이 삼실총에서는 피지배계층까지 확대된다. 이것은 b/c유형을 착용하던 피지배계층이 시간 차를 두고 지배계층의 d유형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b/c유형이 d유형에 비해 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c → d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고구려 복식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면 대체로袴의 폭이 먼저 넓어진 후에, 소매의 폭도 점차 여유 있게 된 것으로 추측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寬大해지는 경향을 보인다.⁵⁶⁾

V. 고구려 고분벽화의 변천

고구려 고분벽화의 편년에 관한 문제는 다수의 학자들이 異見을 보이고 있을 만큼 정확한 내용을 유추하기가 힘들다.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는 지역성과 시기성 간의 미묘한 상관관계가 전제되어 있어, 고분벽화의 변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특성의 종합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복식의 변천이라는 시기성을 중심으로 두 지역 복식들의 상호 교류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시기성과 지역성을 통한 고분벽화의 상대적인 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복식 변천에 따라 평양과 집안의 고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평양지역] 안악3호분→덕흥리→수산리/쌍영총

[집안지역] 각저총/무용총→장천1호→삼실총

위의 고분 순서를 전제로 여자복식을 살펴보면 첫째, 덕흥리고분에 보이는 a유형이 집안지역의 각저총과 장천1호분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각저총에 보이는 a유형이 덕흥리고분과 동일한 右衽인데 비해, 장천1호분에서는 左衽의 a유형이 확인된다. 이것은 각저총에 보이는 우입의 a유형이 덕흥리고분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반면, 장천1호분에 나타나는 좌입의 a유형은 집안 지

56) 이러한 고구려의 寬大化 경향은 중국 陝西省 乾縣에서 발굴된 7세기 말의 章懷太子墓에 묘사된 외국사절 중에 鳥犄冠을 쓰고 廣袖의 襦에 大口袴를 착용하고 있는 고구려 사절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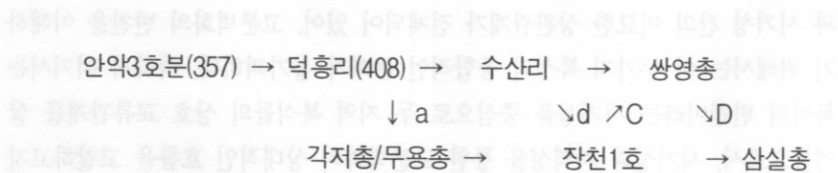
역의 보편적인 柵制인 좌임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평양지역의 수산리고분과 쌍영총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모두 입고 있는 d유형이 집안지역에서는 장천1호분의 지배계층에서 처음 보인다. 이것은 평양지역에서 이미 보편화된 d유형이 집안지역에 유입되면서 지배계층이 이를 먼저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셋째, 집안지역의 삼실총에서는 d유형이 피지배계층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 보이던 b와 c유형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평양지역의 수산리고분과 쌍영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두 지역이 모두 d유형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남자복식을 살펴보면 첫째, 集安式 C유형이 평양지역의 쌍영총에 보인다. C유형은 집안지역 고유의 복식으로 주로 지배계층에서 착용하다가 장천1호분의 시기가 되면 피지배계층까지 확대되는 복식이다. 특히 쌍영총에 보이는 C유형은 柵制에 있어서도 左柵을 따르고 있어서 두 고분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관계를 추정할 수 있겠다.

둘째, 집안지역에서 D유형은 삼실총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이 유형은 이제까지 집안지역에서는 그 예가 없었던 새로운 유형으로서, 평양과 집안지역 사이의 긴밀한 교류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模式圖를 보면 먼저, 두 지역간에 가장 활발한 교류관계를 보이는 수산리, 쌍영총, 장천1호분의 시기는 427년 이루어진 평양천도라는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쌍영총에 등장하는 조우관을 쓰고, 좌임의 C유형의 전형적인 집안식 복식을 한 인물들은 遷都를 전후한 시기에 집안에서 평양으로 이주한 자들로 추측된다. 그리고 삼실총 단계가 되면 그간의 다양한 복식유형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 역시 평양천도이후 5C代 고구려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반영하는 일면이라 하겠다.

끝으로 고구려 벽화고분의 변천에 관한 제 견해들은 <표 9>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9> 고구려 벽화고분 편년안

연대 편년안	4세기			5세기			6세기			출 전	
	전	중	후	전	중	후	전	중	후		
김원룡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쌍영총 삼실총		각지총 무용총				한국벽화고분 (1996)
주영현		안악3호분	각지총	무용총 삼실총							문화유산(1960-2)
김영숙		안악3호분	각지총 무용총	덕흥리고분 삼실총	장천1호분	수신리 쌍영총					조선고고연구 (1988-2)
강현숙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각지총 무용총	삼실총 장천1호분 쌍영총						韓國考古學報 31 (1994)
전호태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각지총	무용총 장천1호분 삼실총	수신리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1997)
劉萱堂				각지총 무용총		장천1호분 삼실총					高句麗研究 4 (1997)
논 자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각지총 무용총	수신리 장천1호분 쌍영총	삼실총					

VI. 맺으면서: 모티브의 변천

고구려 고분벽화를 연구하는데 있어 간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고분벽화란 葬儀美術의 하나라는 점이다.⁵⁷⁾ 일반적인 미술이 裝飾的, 審美的, 記錄의 성격을 위주로 제작되는 것에 비해, 장의미술은 그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살아 있는 자가 죽은 자의 사후를 위해 만들었다는 독특한 목적의식 때문에 그 어떤 회화보다 많은 사상적 의미를 함축한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시간적 흐름 역시 생활·문화사적 측면과 더불어 사상적 흐름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일반 생활·풍속계 모티브를 제외한 나머지 모티브를 중심으로 고분벽화의 사상적 흐름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하는 것으로 맺는 글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각 고분의 벽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1, 2>와 같다.

<표 10-1> 고구려 고분벽화 내용(單室墓)

고분명	벽화주제	벽화내용								
		널길	감/축실	현 실						천장
				동벽	남벽	서벽	북벽	고임		
수산리	생활풍속	문지기		주인과 신하 행렬	행렬	鞍藝圖	묘주부부	연꽃/주작	?	
삼 실 총	생활풍속 四神	1실		행렬	묘주부부	행렬 사냥		전투도	쌍주작 쌍원무	?
		2실		문지기	力士	力士	갑주무사	力士	四神/瑞獸/仙人 飛天/연꽃/化生	
		3실		문지기	장사상	力士	力士	力士	四神/瑞獸/연꽃	

57) 전호태, 앞의 책, p.11 (2000)

<표 10-2> 고구려 고분벽화 내용(多窀墓)

고분명	벽화주제	비화내용												기타				
		남길	감/축길	전실				현실				친경						
				동벽	남벽	서벽	북벽	고임	친경	동벽	남벽		서벽		북벽	고임		
인안3호분	생활풍속	의장행렬	묘주도/부인도 車廡/肉廡/부인 마구간/외양간 방앗간/우물	手搏圖 奔獸手	儀仗旗手 奔獸手	官吏	鬼面	?	日月星辰	歌舞圖						연꽃	대행렬 (회양)	
덕흥리	생활풍속	문지기		행렬	행렬	13郡太守拜禮	묘주도	수림도/天人 瑞獸/瑞鳥 日月星辰 羣牛織女圖 화염문	연꽃	연꽃 연꽃 七宝供養	마구간 외양간	馬射戲 누각 창고	牛輜車 묘주부부	?	연꽃	행렬 (이음길)		
생영총	생활풍속 四神	행렬 牛輜車		청룡	문지기	백호	용	당초문	연꽃	공양행렬	주각 용	?	묘주부부 현무	연꽃	연꽃	연꽃		
각저총	생활풍속			나무	나무	나무	나무	화염문	?	우물 씨름	나무	牛輜車 말/미루	묘주부부	연꽃	연꽃	연꽃		
무용총	생활풍속 四神			나무		인물	기와집	당초문	?	부엌/기루 騎馬人物像	나무	牛輜車 수림도	묘주집개	연꽃	연꽃	연꽃		
장천1호분	생활풍속 四神			묘주부부 歌舞圖	갑주무사	野遊 씨름 사냥	문지기	禮佛/菩薩 飛天/四神 瑞獸/연꽃 化生/力士	?	연꽃	연꽃	연꽃	연꽃	연꽃	연꽃	연꽃	연꽃	日月星辰

이상 나열한 모티브 가운데서 특히, 도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⁵⁸⁾

<표 11> 고분벽화에 보이는 도교적 모티브와 불교적 모티브⁵⁹⁾

고분명		벽화제재	도교적 모티브			불교적 모티브		
			日月星辰	四神	瑞獸/瑞鳥	仙人	蓮花紋	火焰紋
평양 지역	안악3호분		○			○		
	덕흥리고분		○	○	○	○	○	
	수산리고분				○	○		
	쌍영총		○	○		○		
집안 지역	각저총		○			○	○	
	무용총		○	○	○	○	○	
	장천1호분		○	○		○		○
	삼실총		○	○	○	○		○

위의 표를 살펴보면 대체로 5C初의 고분인 평양지역의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수산리고분, 집안지역의 각저총, 무용총에서는 불교적 모티브와 도교적 모티브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도교적인 神仙思想이 가미된 재래내세관을 근간으로 하는 가운데 불교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⁶⁰⁾ 내세관이 점차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5세기 중기 고분으로 추정하였던 쌍영총과 장천1호분은 다른 양

58) 靈獸, 靈鳥, 四神 등을 비롯하여 日月星辰과 天神, 地神, 神仙, 交蛇圖, 鳳凰, 麒麟紋 등은漢과 육조시대의 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문양이고, 蓮花, 飛天像을 비롯하여 火焰紋, 인동 당초문, 동심원문, 귀갑문 등은 불교적인 배경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林永周, 『韓國紋樣史』, 미진사, p.58 (1983))

59) 불교적 모티브와 도교적 모티브를 나열에 있어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직접적인 조사의 부재로 말미암아 각 모티브의 크기관계가 고려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60) 4C~5C의 三國史記에 보이는 불교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卷第十八 高句麗本紀第六 小獸林王條

「二年二年夏六月 秦王苻堅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迴謝以貢方物,

四年 僧阿道來

五年春二月 始創肖門寺 以置順道 又創伊佛蘭寺 以置阿道此海東佛法之始」

『三國史記』卷第十八 高句麗本紀第六 故國壤王條

「九年三月 下教 崇信佛法求福」

『三國史記』卷第十八 高句麗 本紀第六 廣開土王條

「二年秋八月 創九寺於平壤」

상을 보이고 있다. 즉, 도교적 경향이 강한 瑞獸/瑞鳥, 仙人의 예는 찾을 수 없는 반면, 불교적인 색채가 농후한 蓮花化生⁶¹⁾, 飛天 등의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표 10>을 참조하면 쌍영총의 供養行列圖를 비롯한 장천1호분의 禮佛圖, 菩薩圖 등 보다 실제적인 불교관련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의 추이를 두고, 재래내세관이 점차 불교적 내세관으로 대체되어 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5세기초의 벽화고분들과 장천1호분, 쌍영총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끝으로 5세기 후기 고분으로 추정되는 삼실총에서는 장천1호분에 보이던 蓮花化生, 飛天 등의 적극적인 불교도상과 함께 도교적인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이들 도교적 제재 가운데 5세기 전기 고분에서는 보이지 않던 牛頭人身의 炎帝 神農⁶²⁾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다.^(圖12) 이러한 神農, 燧神, 鍛冶神, 製輪神, 磨石神 등의 모티브는 6C代 집안지역의 四神系고분에 주로 보이는 것으로,⁶³⁾ 삼실총에서의 출현을 시작으로 6C代에 적극적으로 수용된 모티브로 생각된다.^(圖13, 14)

이러한 도교적 제재의 등장은 6C代 고분들이 모두 四神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보더라도 고구려 사회의 내세관 구성이 불교적 내세관에 五行信

61) 蓮花化生은 여러 가지 형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고에서는 연꽃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만을 선택하였다.

62) 全虎兌, 「高句麗 後期 四神系 古墳壁畫에 보이는 仙·佛 混合의 來世觀」, 『蔚山史學』7, 울산대학교 사학회, p.35 (1997. 12)

63) 6~7세기 집안지역 四神系 고분벽화의 구성

고 분 명	벽 화 구 성			
	널 길	널 방		
		벽	고 입	천 정
통구사신총	守門神符	四神 雲紋 怪獸	乘鳥乘獸仙人 10人 日月/鬼面/龍/인동연꽃 日月神/나무/神人/祥禽瑞獸	黃龍
오회분5호묘	守門神符	四神 연속변형귀갑무늬 내 불꽃·연꽃 怪獸/龍	연속交龍文·마름모무늬 배합 日月神/乘龍乘麟仙人 製輪神/磨石神/鍛冶神/ 燧神 乘龍伎樂天 연화문/龍/日月星辰	青龍白虎
오회분4호묘	守門神符	四神 연속변형귀갑무늬 내 연꽃·天人(10人) 怪獸/龍	연속交龍文·마름모무늬 배합 일월신/乘龍乘麟仙人 製輪神/磨石神/鍛冶神/ 燧神 乘龍乘鳥伎樂天·天人 연화문/龍/日月星辰	黃龍

全虎兌, 앞의 논문, p.6 발췌 (1997. 12)

仰을 바탕으로 한 昇仙의·道敎의 내세관의 영향력이 확대된 仙·佛 혼합적 내세관으로 변화되어 간 것을 의미한다.⁶⁴⁾ 그러나 아직까지 6C代 도교계통 신앙으로의 복귀에 관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의 문헌기록이 미비하고 營留王7年(624年)부터 보이는 도교관련 기사⁶⁵⁾만으로는 구체적인 규명이 힘들다.

이제까지 간략하게나마 고구려 고분벽화의 흐름을 생활풍속계 모티브와 사상계 모티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고구려 고분벽화의 실견을 직접 대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제약으로 인해 필자의 논리가 어느 정도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벽화고분 자체가 4세기 초 漢 문화 및 북방 문화와의 구체적인 접촉에 의해 수용된 외래문화임을 감안할 때, 중국 고대 고분벽화와의 연장선상에서의 논의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 글을 맺을까 한다.

參考文獻

1. 史料

『北史』, 『通傳』, 『隋書』, 『唐書』, 『後漢書』, 『南齊書』, 『三國志』, 『新唐書』
『三國史記』, 『增補文獻備考』

2. 單行本

高久健二, 『樂浪古墳文化 研究』, 학연문화사 (1995)

權五重, 『樂浪郡研究』, 一潮閣 (1992)

64) 6世紀代 고분벽화의 주제가 四神으로 단일화되는 경향에 관해 전호태씨는 국교로 신봉되던 불교의 배제, 혹은 쇠퇴, 도교 체계화 이전의 도교계통 종파인 五斗米敎에 가까운 형태의 종교로의 回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호태, 앞의 논문, p.32 (1997))

65) 道敎관련 三國史記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卷第二十 高句麗 本紀第八 營留王條

「七年春二月 王遣使如唐 請班歷 遣刑部尚書沈叔安 策王爲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國王 命道士以天尊像及道法 往爲之請老子 王及國人請之八年 王遣使入唐 求學佛老敎法 帝許之」

『三國史記』 卷第二十一 高句麗 本紀第九 寶藏王條

「二年三月 蘇文告王曰 三敎譬如鼎足 闕一不可 今儒釋並興 而道敎未盛 非所謂備天下之道術者也 伏請遣使於唐 求道敎以訓國人 大王深然之 奉表陳請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 取僧寺館之

九年夏六月 盤龍寺普德和尚以國家奉道 不信佛法 南移完山孤大山」

- 金元龍, 『韓國壁畫古墳』, 일지사 (1980)
-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東洋服飾研究院 (1985)
- 金東旭, 『百濟의 服飾』,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 盧泰敦의, 『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 I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996)
- 李亨求의 3, 『高句麗의 考古文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9)
- , 金文字,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1997)
- 衫本正年·문광희역, 『東洋服裝史論考-고대편』, 경춘사 (1995)
- “ ”, 『東洋服裝史論考-중세편』, 경춘사 (1997)
- 安輝濬,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 安輝濬, 金元龍, 『新版 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 劉頌玉, 『韓國服飾史』, 修學社 (1998)
- 魏存成·신용민역, 『高句麗考古』, 호암미술관 (1996)
- 全海宗, 『韓國關係史研究』, 一潮閣 (1970)
- 全虎兌,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 趙善美, 『韓國肖像畫研究』, 悅話堂
- 최무장, 『고구려·발해문화』, 집문당 (1982)
- , 임연철, 『高句麗壁畫古墳』, 신서원 (1990)
- , 『고구려 고고학Ⅱ』(1995)
- 華梅, 『中國服飾史』, 耕春社 (1992)

3. 論文

- 姜仁求, 『高句麗 封土石室墳의 재검토』, 『韓國考古學報』25 (1990)
- 姜賢淑, 『고구려 봉토석실분의 변천에 관하여』, 『韓國考古學報』31 (1994)
- , 『高句麗 石室封土壁畫墳의 淵源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40 (1994. 4)
- 孔錫龜, 『高句麗의 領域擴張에 대한 研究-四世紀를 中心으로』, 『韓國上古史學報』제6호 (1991. 4)
- , 『德興里 壁畫古墳의 主人公과 그 性格』, 『百濟研究』2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김미경, 『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 『학림』17, 연세대사학연구회 (1996)
- 金美子, 『高句麗 古墳壁畫를 통해 본 高句麗 服飾에 관한 研究』, 『高句麗研究4- 高句麗 古墳壁畫』, 고구려연구회 (1997. 12)
- 金也之, 權瑛淑, 『三國時代 服飾 小考』,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研究報告』第5輯 (1979. 12)
- , 鄭惠敬, 『三國時代服飾에 나타난 胡服의 特性』, 『釜山大學校 家政大學 研究報

告』第8輯 (1982. 12)

- 金元龍, 「高句麗古墳壁畫의 起源에 대한 研究」, 『震檀學報』21 (1960)
- , 「高句麗古墳壁畫에 있어서의 佛敎的 要素」, 『韓國美術史研究』(1987)
- 金榮子, 「壁畫를 통해 본 高句麗 服飾의 소매에 관한 考察」, 『白山學報』제29호 (1984. 7)
- 金容文, 「우리나라 修髮에 관한 研究」,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1982)
- , 「아시아 修髮樣式에 관한 研究-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신여대박사학위논문 (1993)
- 權寧弼, 「高句麗 繪畫에 나타난 對外交涉」,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涉』, 第4回 全國美術史學大會 (1996)
- 盧泰敦,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44 (1984)
- 文昌魯, 「三國時代 初期의 豪民」, 『歷史學報』제125집 (1990. 3)
- 余昊奎, 「1~4세기 高구려 政治體制 研究」,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7. 8)
- 손수호, 「고구려무덤벽화에 그려진 행렬도의 유형과 변천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3호, 북한사회과학원 (1992)
- 孫秉憲, 「樂浪古墳의 被葬者」, 『韓國考古學報』17·18 (1985. 12)
- 安輝濬, 「韓國古代繪畫의 特性과 意義-三國時代 人物畫를 中心으로」, 『美術資料』41·42 (1988)
- , 「고구려 고분벽화의 흐름」, 『講座 美術史』10 (1998. 9)
- 劉頌玉, 「高句麗服飾에 관한 研究-東西 服飾 交流面에서」, 홍익대석사학위논문 (1980)
- 柳蕙英, 「敦煌壁畫에 보이는 一般服飾의 研究」, 이화여대박사논문 (1992)
- 尹龍九,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126집 (1989)
- 李基東, 「高句麗史 발전의 劃期로서의 4世紀」, 『講座 美術史』10 (1989)
- 李成制, 「4~5세기 高句麗의 樂浪·帶方故地에 대한 統治와 平壤遷都」(1996)
- 林起煥, 「4세기 高구려의 樂浪·帶方地域 經營-안악3호분·덕흥리고분의 墨書銘 검토를 중심으로」, 『歷史學報』제147집 (1995)
- 全虎兌, 「5세기 高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내세관」, 『韓國史論』21 (1989)
- ,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하늘 연꽃」, 『美術資料』46 (1990)
- , 「고구려 각저총 벽화 연구」, 『美術資料』57 (1996. 6)
- ,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1997)
- ,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론」, 『古文化』50,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7)
- , 「高句麗 後期 四神系 古墳壁畫에 보이는 仙·佛 混合의 來世觀」, 『蔚山史學』7, 울산대학교 사학회 (1997)
- 鄭宛眞, 「高句麗 冠帽考」,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94)
- 趙善美, 「高句麗古墳壁畫에 나타난 繪畫思想」, 『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1988)
- 陳美喜, 「韓國 古代 冠帽에 관한 研究」, 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7. 8)

崔淳雨, 「高句麗古墳壁畫 人物圖의 類型」, 『考古美術』150 (1981)

4. 外國書

岡崎 敬, 『東西交渉の考古學』, 平凡社 (1973)

東潮, 「遼東と高句麗壁畫-墓主圖像の系譜」, 『朝鮮學報』149, (1993)

_____, 『高句麗考古學研究』, 吉川弘文館 (1997)

三上次男, 「樂浪郡社會の支配構造」, 『朝鮮學報』30 (1964)

水野 祐, 「高句麗壁畫古墳と歸化人」, 雄山閣 (1972. 7)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中華大典編印會 (中華民國 56年)

原田淑人, 『漢六朝の服飾』, 東洋文庫 (1937)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劇戲出版社 (1996)

中村潤子, 「高句麗壁畫古墳と樂浪の故地」, 『同志社大學考古學シリーズⅢ-考古學と地域文化』 (1987)

齋 藤忠, 「高句麗古墳壁畫にあらわれた葬送儀禮について」, 『朝鮮學報』91

「朝陽袁台子東晉壁畫墓」, 『文物』第6期 (1984)

5. 圖錄

金基雄, 「高句麗古墳壁畫」, 『한국의 미술』1, 서문당 (1989)

金元龍, 「壁畫」, 『한국미술전집』4, 同和出版社 (1974)

『樓蘭王國と悠久の美女』, 朝日新聞社 (1992)

『服飾篇』, 『中華五千年文物集刊』 (1975)

『魏晉南北朝の世界』, 『中國の歴史』3, 講談社 (1977)

朱榮惠, 『고구려고분벽화』, 朝鮮畫報社 (1985)

『中國五千年 女性裝飾史』, 京都書院 (1993)

『中國新疆古代藝術』, 新疆美術攝影出版社 (1994)

『中國西域 民族服飾研究』, 新疆人民出版社 (1995)

『秦漢帝國の威容』, 『中國の歴史』2, 講談社 (1977)

『집안고구려고분벽화』, 조선일보사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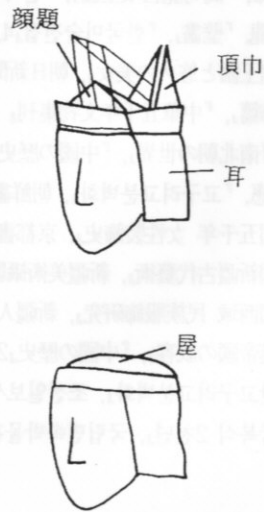
『한국복식 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997)



〈圖 1〉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武冠
(左:안악3호분 墓主圖 右:덕흥리고분 墓主圖)



〈圖 2〉 중국의 武冠
(洛陽上林苑壁畫虎圈鬪獸圖)



〈圖 3〉 幘의 각 부분 명칭



〈圖 4〉 A유형(안악3호분 行列圖,
主室回廊)



〈圖 5〉 B유형(각저총 墓主生活圖,
主室北壁)



〈圖 6〉 C유형
(무용총 墓主接見圖,
主室北壁)



〈圖 7〉 D유형
(삼실총 行列圖, 第1室南壁)



〈圖 8〉 a유형(덕흥리고분
牛轎車圖, 玄室北壁)



〈圖 9〉 b유형(무용총
廚房圖, 玄室東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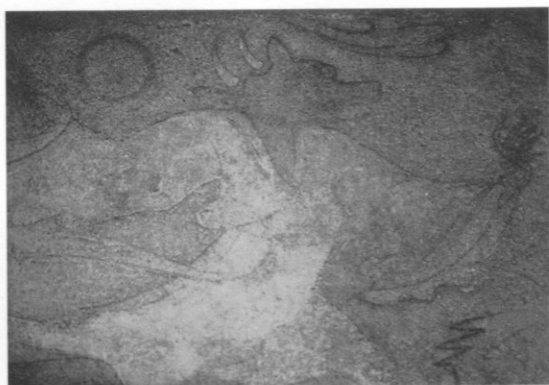
〈圖 10〉 c유형(각저총 墓主生活圖,
主室北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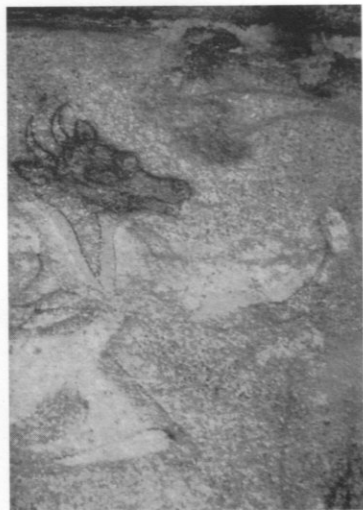
〈圖 11〉 d유형(삼실총
行列圖, 第1室南壁)



〈圖 12〉 神農(삼실총)



〈圖 13〉 神農(오회분 5호묘)



〈圖 14〉 神農(오회분 4호묘)